

# 아노미(Anomie)적 사회환경과 청소년 범죄: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공배완\*

## 요 약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범죄연령의 변화도 발생하며, 범죄종류와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에밀 뒤르켐(E. Durkheim)의 아노미(Anomie) 이론을 검토하여 설명하고 있다. 아노미는 이중규범 또는 규범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기존의 지배적 규범이 약화되면서 새로운 규범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 무규범 또는 이중규범 상태가 되어 사회적 혼란 상태를 야기 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SNS의 보급과 활용은 사회적 규범을 약화시키며 온라인상의 규범은 정립이 미약한 상태이다. 이러한 규범의 혼란 상태에서 청소년 비행은 증가하여 나타나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진과성, 개방성, 접근성, 관계성, 콘텐츠다양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는 그 자체가 일종의 유기체처럼 성장하기 때문에 소비와 생산의 일반적인 매커니즘이 적용되지 않고, 양방향성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특성이 있다. 소셜 미디어는 청소년층에서 소통과 정보, 접촉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에 따른 비행의 접촉율도 높다. 소셜 미디어는 청소년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규제도 뚜렷이 없는 실정이다.

## Anomie Social Environment and Juvenile Delinquency

Gong Bae Wan\*

### ABSTRACT

There appears a variety forms of crime type and age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social structure. In this paper it is described for combining the Anomie theory of Emile Durkheim. Anomie refers to the absence of dual standards or norms. In other words, while weakening the existing norms prevailing when the new rules has not been established. That situation would cause social chaos. Rules on the dissemination and utilization of SNS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undermine the social norms while online regulations are being a weak state not established. In the confusion of these norms it has been shown to increase in juvenile delinquency. Social media has characteristics such as openness, accessibility, relationships, and content diversity. The social media itself is not subject to the general mechanism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due to growing as a kind of organism. It has characteristic to make the most content by utilizing the users to voluntarily share information. Social media using as communication, contact and information in the youth, thus the possibility of crime is high. Social media is also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n youth crime but no apparent systemic regulation of this situation.

**Key words : anomie, juvenile delinquency, youth crime, social media, sns**

접수일(2015년 10월 3일), 게재확정일(2015년 10월 20일)

\* 경남대학교 / 경호비서학과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경남대학교 연구년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1. 서 론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범죄연령의 변화도 발생하며, 범죄종류와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구조의 접근 방법으로서 뒤르켐(E. Durkheim)의 아노미 이론은 사회관계나 문화, 기술변천 등 자체 속에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사회구조와 범죄와의 관계를 접근한 이론이다. 과거의 청소년 범죄는 주로 결손가정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았으나, 현재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생하는 청소년 비행이 보다 증가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노미 이론은 사회구조, 사회체제, 사회제도 등의 중심적 패러다임이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접근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소셜 미디어의 사회환경에서 촉발 또는 유발되는 청소년 비행을 아노미적 접근방법을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 2. 정보화와 아노미적 사회환경

### 2.1 정보화 사회의 진화과정과 특성

정보화란 ‘지식과 자료 따위를 정보의 형태로 가공하여 가치를 높이는 것’[3], 또는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3] 등을 말한다. 따라서 정보는 그 자체로서의 가치보다는 가공과 이용의 과정에서 취득되는 능률성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

정보화 사회란 정보가 중심이 되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사회경제를 행하는 활동이나 경향을 가리킨다. 과거의 농업화 사회, 공업화 사회에서는 가치를 만들어 낼 때에 물질과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다면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다[24].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정보화 사회의 촉진요소가 되었다. 반면, 정보에로의 지나친 의존현상은 정보지배적 패러다임으로 사회구조를 전환시켰고, 인간생활이 정보에 의해 통제되는 가상적 개념이 현실적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를 이끄는 핵심요인은 정보가 또 하나의 경제가치적 자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의 사회적 특성으로서는 산업사회의 물질적 생산 중심에서 정보·지식을 기반으로 한 무형적 산업으로의 중심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변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료는 상상력을 포함한 정보로 정의하고, 상상력과 정보를 통해 여러 가지 소모성 자원들의 대체물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11]. 즉, 정보·지식이 사회혁신과 정책결정의 원천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제도나 구조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물리적, 제도적 네트워크 시스템 기반으로 작동·변천해 가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엘빈 토플러는 <권력의 이동>에서 권력의 세 가지 원천을 폭력(暴力)·부(富)·지식(知識)으로 규정하고, 21세기의 핵심문제는 지식의 장악이며, 지식은 정보와 결합되면서 진정한 권력의 수단과 사회변동의 원천이 된다고 하였다[11].

### 2.2 정보화의 사회적 영향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화의 진행을 가속화시켰고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도 혁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설이 아닌 현실문제로서 직면하고 있으며 현재의 사회구조와 의식구조를 변화시키는 촉진제로 작용을 하고, 미래사회 창조에 결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정보의 사회적 영향력과 위험성은 이러한 과정에서 파생되어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변화의 중심작용을 하며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국가의 제도에 이르기까지 개혁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이버 공간은 새로운 가상세계 영역을 개척·확장하며 현실세계와의 대조적인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물리적 근접성의 한계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개인의 영역이나 지역공동체를 국가나 국제적 규모로까지 확장시키며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가치 공유를 함으로서 정부나 기업의 독점 권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28]. 또한 사이버 공간은 유대감과 상호이해의 향상으로 인종과 성의 경계가 축소되고 공유된 가치의 형성으로 사람들의 의식구조와 가치관, 삶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전통적 사회조직을 와해시키고 있다[28].

### 2.3 아노미적 사회환경의 전개

아노미(anomie)는 긴장이론의 주류로서 에밀 뒤르켕(Emile Durkheim)이 제시한 이론으로서, 이중규범 또는 규범이 없는 상태(without norm)를 의미한다. 즉, 기존의 지배적 규범이 약화되면서 새로운 규범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 무규범 또는 이중규범 상태가 되어 사회적 혼란 상태를 야기 시킨다고 하는 것이다[26].

따라서 아노미 이론은 사회적 해체나 긴장상태를 변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찾으려고 하고, 범죄유발 요인은 사회계층이나 문화 등 사회구조 자체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규범의 혼재나 규범의 일관성 결여, 안정적 욕구충족 수단의 결여, 욕구와 수단의 괴리 등의 유기적 연대에서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고 일탈이 발생된다고 하는 설명이다. 에밀 뒤르켕(Emile Durkheim)의 아노미적 사회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급속한 사회변화(rapid social change)의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규범들이 힘을 잃거나 급격하게 파괴되어 사회혼란을 초래한다고 한다[26].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는 이러한 아노미적 사회환경을 더욱 촉발시키는 기폭제로 작용을 하고 있고, 온라인상의 인적관계를 강화시키며 SNS의 결속을 통해 오프라인과는 별도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아노미적 사회 환경의 전개는 소셜 네트워크의 형성에서 비롯되고, 정보화의 발전요인에 의해 확산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 환경은 기존의 지배적 규범이 적용되지 않거나 새로운 사이버 규범이 정립되지 않음으로서 무규범적(아노미적) 사회 환경이 조성되고, 소셜 미디어에 익숙한 청소년층에게는 직접적인 규범의 영향력으로 작용한다.

## 3. 소셜 미디어의 활용과 청소년 비행

### 3.1 소셜 미디어의 사회적 특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매체적 특성은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16]. 따라서 소셜 미디어는 젊은 연령층에 있어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적인 활동장소로서

사용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다양한 이용자에 의해 생성되고 공유되는 다대다(many-to-many)의 쌍방향적 관계성이 형성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별도의 사이버 공간에서 이용자에 의한 가치 공유형태로 발전하며, 현실적 규범과 일치하지 않거나 배치되는 소통의 팩트로 자리 잡게 된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는 전파성, 개방성, 접근성, 관계성, 콘텐츠다양성 등의 특성을 갖게 된다. 소셜 미디어의 가장 큰 강점은 신속한 정보의 전달, 정보의 수평적 전달,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피라미드식 확산이다[29]. 이에 따라 소셜 미디어는 공동체적 대화를 촉진시키며 이에 따른 상호 간 영향력이 증가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사회변화를 촉진시키며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 온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의 확산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새로운 가치 혁신의 장(場)으로 활용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제도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가상의 공간을 통해 비대면성과 익명성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하여 개인 욕구분출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모함과 사기, 마약, 음란물 등 일탈의 기회로 활용되면서 사회적 부작용을 동반하기도 한다[1].

### 3.2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의 활용과 비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의 청소년 소셜 미디어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SNS의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52.4%로 나타났다. 또한 이희복 등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SNS 이용기간이 1~3년(48.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년 이상(23.2%), 6개월~1년(15.6%) 등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SNS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평일과 주말 모두 2시간~5시간(31.4%)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시간 미만(30.7%), 1시간~2시간(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14].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친구교제(52.3%), 취미생활 정보제공(19.3%), 일상생활 정보제공(10.7%), 연예 및 오락 정보제공(9.5%) 등의 순이었다[20]. 따라서 SNS의 주요 이용 동기는 주로 관계유지, 연결확장, 관계형성, 정보검색, 오락, 사교 등의 요인이 대부분이다[14].

소셜 미디어는 불특정 다수와 동시다발적으로 사·공간을 초월하여 교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특징 때문에 사회적 과장과 영향력이 크다. 특히, 소셜 미디어는 또래 집단의 규범인지와 인지된 규범의 영향력은 사회적 가치와 효율성으로 작용하면서 청소년층에는 비행의 고리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소셜 미디어의 사이버 상의 ‘친구들’은 어느 정도의 심리적 관련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특정 사항에 있어서는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다[20]. 이러한 공유성은 또래집단의 규범인지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인지된 규범은 사회에서 보편적 규범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반두라(Albert Bandura)는 사회학습이론(1977)에서 또래 집단의 태도와 행동이 관찰자에 의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학습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20][18].

통계청의 청소년 대상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사용 조사(2015)에서는 2014년 10대 청소년의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14.4시간이고(20대는 20.5시간), 인터넷을 이용하는 빈도는 ‘하루에 1회 이상’인 경우가 97% 이상으로 나타났다[19]. 이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중·고등학생이 한번이라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유해매체는 ‘휴대폰성인물(52.6%)’, ‘케이블TV의 성인용 프로그램(42.7%)’, ‘성인용 간행물(34.1%)’ 등의 순이다. ‘휴대폰 성인물’, ‘케이블TV의 성인용 프로그램’등은 2012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편이다[19]. 보건복지부의 자료에서는 청소년들의 유해매체 이용이 증가하면서 성인용 게임이나 사행성 게임의 이용률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81%가 게임으로 인해 외부활동(31.7%)·학업지장(25.7%)·폭력적인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한다(23.6%)[7]. 따라서 인터넷을 비롯하여 각종의 소셜 미디어의 접촉은 사행성, 우발적, 호기심적 청소년 범죄를 유발하는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3.3 청소년 비행의 특징

#### 3.1.1 평균연령의 저하

범죄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성인들의 행태를 모방하는 과정에서 일탈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사이버 환경중심의 청소년 문

화공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검찰청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강력범죄의 범행 시 나이로는 17세가 전체의 13.7%인 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16세 397건(11.5%), 15세 373건(10.8%), 18세 369건(10.7%)이 많이 나타났다. 청소년 범죄는 성인범죄를 모방하는 경향이 많고, 특히 사이버 환경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환경은 제약이 미약하고 특별한 여과과정 없이 언제든지 청소년들이 접속하여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소이며 공간이고, SNS는 이러한 접속을 용이하게 해주는 청소년들의 적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범죄(절도, 횡령, 배임, 장물, 사기 등)나 성폭력에서 저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절도는 저연령화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범죄의 유형이다[10].

#### 3.1.2 강력범죄의 증가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범죄를 포함한다. 이러한 강력범죄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는 영원한 상처로 남아서 또 다른 보복범죄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소년 강력범죄는 2006년부터 꾸준한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2015.9.10) 지난 2011년부터 급년 7월까지 강력범죄 등을 저지르고 검거된 촉법소년<sup>1)</sup>이 4만39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9431명이던 촉법소년은 2012년 1만3059명으로 급증했다가 2013년 9928명, 2014년 7873명으로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011년 363명에서 2014년 479명으로 3년 만에 32%나 증가했다. 특히, 성폭력은 2011년 224명에서 2012년 308명, 2013년 330명, 2014년 362명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3년 만에 60% 이상 늘었다(해럴드경제, 2010.9.10.).

또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만 10~18세)가 총 1만3846명으로 집계되었고, 이들 중 살인, 방화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1000명이 넘

1) 촉법소년(觸法少年)이란, 10세에서 13세까지의 형사미성년자로서 범법행위를 저지를 사람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며, 이들 중 3분의 2는 성범죄로 나타났다.

### 3.1.3 범죄의 집단화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범죄의 집단화 현상이다. 소년 강력범은 단독보다는 공범에 의한 경우가 더욱 많으며 공범간의 관계는 학교동창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고향친구나 동네친구 등이다[23]. 따라서 이들은 2인 이상의 다수가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집단화 경향은 폭력, 강도, 절도 범죄에서 두드러지며, 특히 청소년 강도 범죄는 85% 이상이 공동 범행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10]. 그 중에서도 성폭력 범죄에서 집단화 현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1년까지는 성폭력 범죄의 80% 이상이 1인에 의한 것이었으나, 2007년을 제외한 2002년 이후에는 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절반 이상이 집단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10].

집단화의 이유는 청소년의 특성인 집단소속욕구와 친구나 주변상황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으며, 정상집단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비정상집단(불량집단)에 가입함으로써 사회적 돌파구를 비정상적으로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형성된 집단의 성격은 비공식적 지속적인 모임을 갖게 되고, 구성원의 유대강화를 위해 특별한 의식을 행사하며 사회적 불만을 비행을 통해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들은 집단속에서 인정받으며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집단군중심리에 지배를 받게 된다. 이러한 집단은 도덕감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둔화되어 사회에 대한 저항의식이 팽배하여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격적이고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게 된다.

### 3.1.4 여성범죄의 증가

과거 여자 청소년의 비행 문제는 그동안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이는 여자 청소년의 비행이 남자 청소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비행의 심각성에 있어서도 그 수준이 심각하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17]. 그러나 최근에는 소년범죄에서 여자 청소년에 의한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00년 이후 여자 청소년의 범죄 증가율은 남자 청소년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17]. 특히, 폭력범죄에 가담한 여성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했고 폭력범죄 중에서도 폭력성이 심한 유형에 속하는 강도와 폭행에 여자 청소년 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에 의하면 전체 여성 범죄자 중 소녀 범죄자의 비율은 4.8%이며, 전체 소년 범죄자 중 소녀 범죄자의 비율은 17.3%로 그 중 살인범죄의 경우 소녀 범죄자의 비율이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9].

남녀비율로 본다면 청소년 강력범죄 중 남성은 2,347건 여성은 173건이고, 살인은 남성이 20건 여성은 3건, 강도는 남성이 520건 여성이 103건을 기록했다(주간한국, 2015.08.29). 남녀 범죄율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였지만 여성 청소년의 범죄의 증감에서 본다면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여성범죄가 증가하여 나타난다는 것이다.

### 3.1.5 재범률의 증가

경찰에 검거된 만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자(소년법) 가운데 전과자의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검거된 소년범들의 재범률은 2009년 32.4%에서 2010년 35.5%, 2011년 36.9%, 2012년 37.3%로 4년째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41.9%까지 올라갔다[2]. 이러한 소년범 가운데 9차래 이상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도 2009년 1천597명에서 2010년 1천878명, 2011년 2천101명, 2012년 3천362명으로 4년간 배 이상으로 늘었다. 2015년 8월 말까지 2천923명에 달했다(연합뉴스, 2015.9.10.). 청소년의 재범을 영향으로는 소셜 미디어를 주축으로 한 또래문화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 범죄 전력을 일종의 훈장이나 영웅담으로 과시되는 풍조가 만연하면서 자신의 용맹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보상심리가 범죄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10].

### 3.1.6 죄의식 희박

청소년들은 아직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환경을 모방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간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주변환경은 매우 중요하며 생산능력이 없는 그들에게는 소비에만 관심을 쏟는다. 이들은 가족보다는 친구나 동료집단들과의

중점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노동보다는 여가를 중시하며 성인문화에 대해서는 도전적이고 이상과 현실, 전통과 서구문화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이용과 의존현상은 지나칠 정도이다.

청소년들의 이방인적인 이러한 특징은 사회에 대한 그들의 생각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가 전국 초·중·고등학생 2만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3년 청소년 정직 지수 조사 결과'에서 고등학생 응답자의 47%가 '10억 원이 생긴다면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답했다.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항목에는 초등학생 19%, 중학생 27%, 고등학생 36%가 '그렇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의 범죄의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자기중심적 사고가 팽배해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 4. 청소년 비행 대책

### 4.1 제도적 규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약물, 유해물건, 청소년 유해업소들에 대해 명시하여 유해매체물 등의 유통을 규제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로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말한다.

그러나 SNS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아직 없는 실정이고 정부의 방침만 있을 뿐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들의 조기발굴을 위해서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여 전국 20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치료협력병원,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센터 및 청소년상담사로 구성되어 종합적인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NS의 규제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비등하다. SNS는 더 이상 사적공간이 아닌 공적공간으로서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과급력을 생각하면 규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과, SNS는 사적인 의사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영역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규제자체는 인터넷을 통한 국민생활을 제약하

는 것이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모든 미디어에는 규제가 따르듯이 내용상 불법적인 콘텐츠나 사회적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 장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이 사적 영역일지라도 공적으로 폐단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여과장치는 있어야 할 것이다.

### 4.2 교육적 관리

교육은 인간형성의 과정이며 사회개조의 수단이다.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여 개인생활·가정생활·사회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며 나아가 사회발전을 꾀하는 작용인 것이다[21]. 교육은 가정-학교-지역사회-보호기관 등의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가정은 1차적인 사회집단으로서 청소년이 접촉하는 최초의 집단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가정으로부터 학습을 시작하게 되며, 가정은 아동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학교는 또래집단이 형성되는 2차적 사회집단이다. 청소년들은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시기를 학교에서 보내게 된다. 학교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가져올 수 있는 지식교육과 사회성이 향상될 수 있는 조화로운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외부나 또래집단의 영향을 쉽게 받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대중매체,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의 사회적 커뮤니티 수단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연령대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 4.3 자율적 규제

사회적 규율에 대해 제도적 장치의 부재와 교육적 기능이 상실 될 때 남아있는 수단은 자율적인 방법이다. 사전적 용어의 '자율'이란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성질이나 특성을 말한다[3]. 즉, 공권력이나 사적 집단의 부당한 강압이나 유혹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3]. 이는 주변의 환경이나 자신의 의지밖에 있는 권위나 목적에 따르는 ‘타율’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자율성(自律性)은 본인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하고 지배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선택을 실행하는 자유를 말한다.

각종의 사회적 규제나 제도적 장치보다도 가장 우선하며 중요한 것이 자율성이다. 자율적 선택이 잘못되거나 위법적인 것일 때에 발동되는 것이 타율적 제재이다. 청소년의 비행문제도 스스로 통제하고 합리적 선택을 통해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자율적 규제가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자율적 규제가 어려운 것은 인격형성을 할 수 있는 교육적 기능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정교육이나 학교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선(善)과 악(惡)에 대한 분별능력이 길러진다.

## 5. 결 론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등의 강력 범죄로 체포된 10대 청소년은 총 1만 3,84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9건씩 10대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호기심에 의한 범죄였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는 점차 흉폭화 되어가며 집단화 되어가는 경향을 띠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이러한 청소년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규제도 뚜렷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제도적 규제와 교육기능의 활성화,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의 비행에 대한 책임 의식이 고취될 수 있어야만 청소년 비행에 대한 예방수단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공배완, “정보화 사회의 위험요소와 민간시큐리티의 역할”,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제8권 제1호, 1-10, 2012.
- [2] 경찰청, 2015
- [3] 네이버사전, 2015
- [4] 대검찰청, 2015
- [5] 마르코오루, 아노미의 사회학(사회비평신서 14), 나남, 1990
- [6] 박용기, “청소년의 SNS 중독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13권 제4호, 2013
- [7] 보건복지부, 2015
- [8] 설진아, “소셜 미디어의 진화양상과 사회적 영향”, 한국언론정보학회 제12권, p.23, 2009.
- [9] 신영호, 범죄심리학, 한국학술정보, 2012
- [10] 심리학용어사전, 한국심리학회, 2014
- [11] 엘빈 토플러(이계행 역), 권력이동, 한국경제신문사, 1993
- [12] 온라인 저널리즘, 2013. 2. 25., 커뮤니케이션박스
- [13] 위키백과, 2015
- [14] 이희복;김대환;최지윤;신명희, “청소년의 SNS 이용특성과 중독경향성 연구: 경기도와 강원도 중학생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제16권 제1호, 2014.
- [15] 조화순; 송경재, “인터넷 문화형성의 아키텍처 국제비교: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정보와 사회 22: 한국정보사회학회, 83-111, 2012.5.
- [16] 조화순; 김정연, “소셜미디어의 매체 특성과 참여의 커뮤니케이션: 반값등록금 관련 블로그와 트위터 내용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29(2):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회, 95-130, 2012.6.
- [17] 최영신, 여자비행청소년의 범죄피해경험과 처우, 2001
- [18] 최영인, 문화적 일탈이론과 범죄사회학습이론, 백산출판사, 2005
- [19] 통계청, 2015
- [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2012.
- [2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22] 황유선;박남기, 미디어 기업의 소셜 미디어 활용, 2010.
- [23] 허경미, “소년강력법의 사법처우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38), 2005.
- [24] 식품과학기술대사전, 2008
- [25] Alvin Toffler, 김진욱 역, The Third Waves, 범우사, 2014
- [26] Emile Durkheim(민문홍 역), 사회분업론, 아카넷, 2012
- [27] Kietzmann, Jan H., Hermkens, Kristopher, McCarthy Ian P., Silvestre, Bruno S.(2011년) Social media? Get serious! Understanding the functional building blocks of social media. Business Horizons, 54, 241~251.
- [28] Matthew Fraser; Soumitra Dutta; 최경은 역, 소셜 네트워크의 혁명, 행간, 2010
- [29] <http://prworld.blog.me/20153721708>

---

[저자 소개]

---



**공 배 완 (Bae-Wan Gong)**

1989년 6월 학사  
1990년 6월 석사  
1993년 6월 박사

email : gongbw@naver.com